

# 페퍼배구단 홈경기 일부 성남 개최 '우려'

###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6차 회의서 노숙인 쉼터·포트홀 등 논의 무등초 스크론,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 단속 등 7건 서면 검토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광주시 쓴소리 위원회가 노숙인 쉼터 문제, 고졸 청년 취업 대책, 포트홀 해결, 여자배구단 홈경기 개최 여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시청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쓴소리 위원회는 광주시에 노숙인 쉼터 운영 등을 따져 묻고, 고졸 청년 취업의 대학 진학을 제고하고 포트홀(도로파임) 최소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본질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또 페퍼배구단 홈경기 일부 성남 개최 등도 집중 논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노숙인쉼터 운영 현황 및 현장활동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한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강화 방침 등을 약속했다.

시는 또 고졸 청년의 대학 진학을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최근 출범한 대학발전협력단의 역할 및 기능을 소개하고, 고졸자 및 기존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양성 재교육과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의 기능 강화 계획을 내놨다.

광주시와 위원회는 이날 도로파임(포트홀)과 관련한 최근 3년간 발생 현황, 2021년 포장 정비 예산, 도로파임으로 인한 보상 현황 및 관련 정비 인원·장비 현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도로파임 개선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도 이어갔다.

위원회는 특히 최근 연구 팀으로 유지한 페퍼배구단 홈경기 일부가 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점을 지적하고, 배구단이 지역 연구 스포츠 팀으로 온전히 정착하기를 바라는 체육계와 시민의 우려 등을 전달했다. 페퍼배구단은 광주를 연고로 하면서도 선수단 숙소와 훈련장을 분사가 있는 성남에 마련하는 데다, 광주와 수도권에서 경기를 나눠 치르기로 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페퍼배구단은 홈 경기 분산 개최 등을 조건으로 광주를 연고지로 정했다는 점에서, 모든 홈 경기 광주개최와 선수단 숙소·훈련장 광주 이전 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밖에도 ▲무등초등학교 스크론 안전통학로 확보 ▲노인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 필요 ▲보행자, 자전거 도로 개편·확충 ▲가로등 현수막(베너) 홍보 정비 ▲개인형 이동장치 강화된 법령 홍보 ▲2020년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선 방안 ▲캠핑카, 카라반 장기주차 단속 등 7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논의했다.

김경희 쓴소리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통계,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단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닌 사실 관계에 입각해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웅섭 시장은 "쓰소리위원회의 열정과 꾸준함이 소홀하기 쉬운 생활 속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청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영록 지사가 밤기차에 오른 이유는

### 민주 재정부권특별위 참석 상경 군특회계 5년 이상 연장 요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일 밤기차로 급히 상경했다. '의병의 날'인 이날 오후 8시 30분 나주시 금성관 일원에서 열린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나주에는 오는 2025년까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설립하는데, 이 역시 그가 각별히 정성을 들인 사업이다.

김 지사는 그러나 2일 오전 7시 국회에서 민주당 재정부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 "불청객"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이양사업비 연장을 보다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군특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비를 3년간만 보전한다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소하천 정비 등 낙후지역 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크게 우려된다"며 "지방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한시보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

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 수립 시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1조2000억원이 반드시 보전돼야만 광역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재정분권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 위원장, 정부에서는 이재영 행안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김 지사만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요청에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1단계 재정분권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 간 재정 형평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부처 간 세세한 방안도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광주일보에 "현재의 재정분권 방향으로 간다면 전남을 비롯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제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 시급히 상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화의 길 걷기' 인문학 강좌 '2021 광주 남구 평화의 길 걷기' 행사가 3일 오후 광주 북구 무등산 옛길 3구간인 환벽당에서 열린 인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교수가 사역 동원' 수업거부 전남도립대 질타

김경자 도의원,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가 교수 갑질 의혹 등이 제기돼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부른 전남도립대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서 "전

남도립대 산업디자인과 A교수가 학생들에게 갑질 등을 했고 이에 해당 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교수는 업체와 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한 정식절차가 아닌 특정인을 위해 학생들을 끌고 다녔고 학생들은 죽목에 제품 판매 업체 온라인 홍보 사진 작업을 도와야 했다"고 덧붙였다.

였다. 그러면서 "학생들 주장에 해당 교수가 맞서면서 학교 측이 전남도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총장 재량으로 대체강사 투입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해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는 학교 측이 이 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고강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립대는 답안에 소재하며 이번 수업 거부에 나선 학생들은 40여명 수준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부담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영 악화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일일 최대 6만 6000원~7만원)에 더해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경제고용진흥

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jk.gepa.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22억원(2만147명)을 지원했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라며 "최고의 경제 안정 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하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성범죄 예방 여성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각종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여성 화장실 안심 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에 시공하는 공공건축자화장실 각 칸마다 여성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33곳에 설치했으며, 앞으로 건립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내 여자화장실에도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 안심 비상벨은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급상

황 대처를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칸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과 함께 비상벨이 울리고, 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수신기로 곧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알림이 전달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금화 건축설비부장은 "최근 화장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져 여성이 안전한 광주 실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MG금남새마을금고**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